

異蹟

밭에 터분한 것을 다 빼여 바리고

黃昏이 湖水우로 걸어오듯이

나도 삼분  걸어 보리 잇가?

내사 이 湖水가로

부르는 이 없이

불리워 온것은

참말異蹟이 외다.

오늘따라

戀情、自惚、猜忌、이것들이

작고 金메달처럼 만져 지는구려

하나, 내 모든것을 餘念없이,

물결에 써서 보내려니

당신은 湖面으로 나를불러내소서.

一九三八、六、十九、

이적

밭에 터분한 것을 다 빼어 버리고

황혼이 호수 위로 걸어오듯이

나도 사뿐사뿐 걸어보리이까?

내사 이 호수가로

부르는 이 없이

불리어 온 것은

참말 이적이외다.

오늘따라

연정, 자홀, 시기 이것들이

자꾸 金메달처럼 만져지는구려.

하나, 내 모든 것을 여념없이,

물결에 써서 보내려니

당신은 호면으로 나를 불러내소서.

1938. 6. 19.